

파격·혁신...아시아 영상예술을 만나다

26~28일 'ACC 시네마펀드 프리미어'

라이브러리파크 극장3서
태국·필리핀·중·한국 작가 작품
5편 상영·작가와의 대화
설치작 3편은 3월까지 상설 관람



비목티 자야순다라 연출 '순간'

아시아의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영상들을 광주에서 만난다.

'ACC 시네마펀드' 지원을 받아 제작된 작품을 선보이는 'ACC 시네마펀드 프리미어'가 오는 26~2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극장3에서 열린다. 시사회에서는 작품 5편을 상영하고 감독과의 만남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ACC 시네마펀드'는 아시아 17개 지역 118편의 프로젝트를 접수했고 최종 선정된 아시아 영상 작가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교육을 진행하고 제작 지원을 했다.

설치형 영상 작품 3편은 오는 3월31일까지 라이브러리파크 실험영화주제관 등에서 상시 관람(오전 10시~오후 6시) 할 수 있다.

시사회 첫날인 26일에는 태국 감독 타이키 삭피시 '그림자와 행위'와 필리핀 존 토레스 '우리는 여전히 눈을 감아야만 한다'를 상영한 뒤 이들 감독과 대화 시간을 갖는다.

'그림자와 행위' (23분)는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스튜디오에서 전 태국 총리이자 군사 독재자였던 블랙 피본송크람이 좋아했던 장소의 72년 역사를 담았다. '우리는 여전히 눈을 감아야만 한다' (13분)는 마닐라의 영화 세트 및 촬영지 주변부에 있는 장면들을 허구처럼 그려냈다. 존 토레스의 작품은 그동안 베를린 국제영화제,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비엔나 국제영화제, 뮌헨 국제영화제 등



보왕 연출 '속삭이는 진해와 소리 없이 떨어지는 잎들'

에서 상영됐다. 다음 날인 27일 오후 3시부터는 변재규 감독의 '필름엔 비디오 아카이브 컬렉션'과 관객과 대화가 차례로 진행된다.

변 감독은 풍경의 파노라마적 재해석을 통한 영상 설치 작업을 시작한 이래, 최근 영화장치와 시각적 매커니즘의 관계에 대한 실험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광주비엔날레, 부산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 참가했다.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서울독립영화제, 플란도 국립미술관 미디어아트비엔날

레, 함부르크 국제단편영화제 등에 그의 작품이 상영됐다. 이날 변 감독의 대표작들과 전당에 설치된 작품 '필름메트릭스 02'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같은 날 관객을 만나는 중국 보왕의 '속삭이는 진해와 소리 없이 떨어지는 잎들' (21분)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장소 국군광주병원을 조명했다. 먼지, 들뜬, 잔해, 폐허와 인체, 그리고 인체의 문화적 변신을 소재로 버려진 장소에 대한 시각적 탐구를 보여준다.

이외 스리랑카 비목티 자야순다라의 '순간' (25분), 캄보디아 알버트 샴렛의 '지구에서의 일광년' (16분), 홍콩 임 옥 유의 'HBG: 인간, 짐승 그리고 귀신' (비디오게임 시뮬레이션), 대만 슈리 령의 '바이러스 창궐' (비디오 설치) 등이 선보여진다.

이들 작품 중 타이키 삭피시, 존 토레스, 알버트 샴렛, 보왕 작품은 오는 24일까지 일본 도쿄도사진미술관에서 열리는 '11회 에비스 영상제'에서 소개됐다. 무료 관람. 문의 1899-556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김진 트리오 연주회



김진 프랑수아 페르난데즈 아렌트 흐로스펠트 김윤경

28일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바로크 음악의 대표 연주자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진(59)이 오는 28일 광주서 트리오 연주회를 갖는다.

이날 오후 7시 30분 광주시 남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마에스트리 디베르시' 트리오 공연이 열린다.

광주 출신인 김진은 국내에서 '그 시대의 음악을 그 시대의 악기'로 연주하는 '원전 연주' (原典演奏)의 물꼬를 텄다. 그는 지난 1992년 처음으로 바로크 바이올린 연주를 선보였다. 바로크 음악은 보통 1600년대부터 1750년 바흐가 사망할 때까지 작곡된 곡을 말한다. 김진이 연주하는 악기는 오스트리아 압삼에서 제작된 1656년산(産) 야콥 슈타이너다.

이날 공연은 김진이 2002년 창단한 바로크 앙상블 '무지카 글로리아'가 주최·주관하는 올해 첫 연주회 시리즈다. 김진과 함께 무대에 오를 연주자는 프랑스 출신 프랑수아 페르난데즈(바로크 바이올린·비올라 다스팔라)와 네덜란드 아렌트 흐로스

펠트(첼로), 김윤경(바로크 바이올린)이다.

1986년 17살의 나이에 바로크 오케스트라 라쁘띠방드의 악장이 된 페르난데즈는 활발한 연주·지휘·음반 제작 활동을 하고 있다. 하프시코드로도 불리는 첼발로 연주자 흐로스펠트는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원을 졸업했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통주저음을 가르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윤경은 8년여 동안 벨기에 브뤼셀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했다.

공연은 바로크 시대 음악들로 채워진다. 요한 요제프 폭스의 '세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F장조'로 문을 열고 바흐의 '오르간을 위한 트리오 소나타 1번 F장조 작품 525'가 이어진다. 주세페 안토니오 브레시아넬로, 비아지오 마리니, 헨리 퍼셀의 음악을 연주한 뒤 마지막으로 비발디의 트리오 소나타 1-12번 d단조 '라 폴리아'로 마무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진 홈페이지(jinkimviolin.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석 3만원. 문의 010-3607-2114.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제8기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 작가 모집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단이 운영하는 제8기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작가를 모집한다.

입주 작가에게는 ▲창작공간(스튜디오) 및 사무기구 일부 ▲창작지원금 ▲레지던스 프로그램(전시, 국내외 교류, 역량강화 워크숍, 결과보고 도록 발간 등) 등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인 중국 창샤와의 교류와 아메리칸 아트 인큐베이터(AAI)의 제로원(ZERO1) 교류 프로그램 참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작품 제작, 기획전시, 시민 아카데미 등과 작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레지던스로 기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

다. 또한 올해는 공동 커뮤니티룸 1개실을 신설해 협업을 증진하고 창작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공모 접수기간은 20일부터 26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5명(팀), 지원 자격은 운영기간(2019년 4월 1일~12월 31일) 중 창작활동이 가능한 국내외 미디어아트 작가로, 타 레지던스 스튜디오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이다. 입주 희망 작가는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입주신청서, 창작활동계획서 등을 작성 후 이메일(kangmokey@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7493. /백희준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예술회관 27일까지 운영자문위원 4명 공모

광주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을 오는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음악 2명과 무용, 국악 각 1명씩 총 4명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선정된 자문위원은 회관과 시립예술단체의 관리운영에 대한 자문·심의 등을 맡는다. 관련 분야에 5년 이

상 종사했거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활동했던 자격 요건에 든다. 회관 홈페이지(gjart.kwangju.go.kr)를 참고한 뒤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gjart8351@korea.kr) 등으로 내면 된다. 문의 062-613-835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베트남 미술 흐름 한눈에 '하노이 아티스트 9인전'

예술의 거리 나인갤러리 3월 9일까지



응웬 떼 주이작 'Traditional Procession on a Street'

올 초 베트남 국민작가로 꼽히는 부상파이 작고 30주기 특별전을 진행했던 나인갤러리가 이번에는 베트남 작가 9명의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전을 마련했다.

오는 3월 9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나인갤러리에서 열리는 '신짜오, 하노이 아티스트 9인전'은 한베 미술교류협회(회장 최창준)와 공동기획으로 마련한 전시다.

이번 전시는 베트남 현대미술의 태동기부터 활약했던 작고 작가들을 포함해 시대적 격동기를 거치며 원로·중진 작가, 베트남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미술을 관통하는 작가 등의 작품을 통해 베트남 미술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전시에

는 중견작가 쯡 딘 하오, 쩌 타잉 림, 팜 탕 등도 참여해 모두 30여점을 선보인다.

작가들도 이들을 알린 응웬 득 또한은 강렬한 빨강색을 배경삼아 여인의 움직임에 포착한 작품을, 대표적인 원로조각가인 쩌 타잉은 토데미즘에 기반을 둔 작품을 선보인다. 쯡영 딕 하오는 소수

민족의 생활, 전통적 풍경, 동물 등의 소재를 해석적으로 그려냈다. 또 하노이 미술대학 출신 중 4대 유망 작가로 손꼽히는 응웬 밍 프억은 내면의 소리를 통찰하고 독자적인 이미지를 화면에 구현해 주목받고 있다. 문의 062-232-232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대안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주택 맞춤형 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특허공법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165,000 원 (VAT포함)

2019년 3월 27일 (수)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 062-228-4711~2

신양파크호텔

봄맞이 디너쇼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콜케일 증정)

2019 Dinner Show

박상민

ShinYang Park Hotel